

D램 시장 급성장... 삼성·SK, 차세대 기술개발·양산 속도

글로벌 D램 매출 전년 대비 260% ↑
삼성·SK, 시장 점유율 70% 달해
LPDDR6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나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초호황 국면 속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버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D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양사는 차세대 D램과 LPDDR6 등을 앞세워 향후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중국 CXMT까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이 전례 없는 AI 수요와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0% 급증한 9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3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으며 SK하이닉스는 29%로 2위를 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서버용 저전력 D램(LPDDR5) 탑재 확대 등을 글로벌 D램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모바일 D램 표준인 LPDDR6 시장 선점을 놓고 경쟁에 한창이다. AI 서버·엣지·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라 고효율·고성능 D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LPDDR의 중요성 역시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고체회로학회 2026'에서 최대 14.4Gbps 전송 속도의 LPDDR6를 선보인 바 있다. 이는 10나노급 5세대(1b)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LPDDR5 대비 읽기 전력을 27%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5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해당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이전 세대(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전력효율을 20% 올렸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각기 다른 공정 기반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1b 공정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전력 효율 최적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편 SK하이닉스는 선단 공정인 1c 기반으로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도 시장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옵디아데이터에 따르면 D램 판매액 기준 CXMT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3.97%에서 4분기 7.67%까지 상승했다.

더욱이 CXMT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CXMT의 과장판(과학혁신탐·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IPO가 이날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발행 및 상장 조건과 정보공시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IPO를 통해 295억위안(한화 약 6조 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오랫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크론 등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D램의 경우 3사 점유율이 90% 차지해왔지만 최근 CXMT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업계에서도 성장 속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범용 D램 중심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LPDDR과 HBM 등 고부가 제품군까지 빠르게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과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이페이퍼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초저전력 승부

내달 32형 QHD 제품 국내 출시
"B2B 고객에 새로운 선택지 될 것"

LG전자가 전자잉크 기반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듦에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를 본격화했다.

28일 LG전자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다음 달 초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페이퍼(E-Paper) 시장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든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2형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글로벌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13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가 32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페이퍼(E-Paper)는 전하를 띤 색 입자를 전기장으로 이동·고정시켜 이미지를 구현하는 전자 잉크 패널 기술이다. 전력 공급 없이도 화면을 유지할 수 있고, 이미지 전환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매장 메뉴판, 프로모션 안내판 등 콘텐츠 교체 빈도가 낮은 상업 공간이 주요 수요처로 꼽힌다.



LG전자가 종이 포스터 질감을 초(超)저전력으로 구현하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출시했다. /LG전자

시장조사업체 데이터브리지마켓리서치(DataBridgeMarket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이페이퍼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24년 53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2032년까지 4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30.4%에 이른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 시장에서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LG전자의 이페이퍼 디스플레이의 사양은 32형, QHD(2,560×1,440) 해상도, 화면비 16:9다.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패널로 시야각은 180도이며, 눈부심을 줄였다. 전자 잉크의 색 표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배터리는 72Wh 용량을 탑재했으며 완전 충전에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후면에 마그네틱 방식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콘텐츠 전환 일정에 따라 전원을 자동 제어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LG전자의 사이니지 솔루션 'LG 슈퍼사인(SuperSign) 콘텐츠 관

리 시스템(CMS)'과 연동하면 다수 기기에 콘텐츠를 원격으로 일괄 배포하거나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범용 직렬 버스(USB) 저장장치나 고객사 자체 CMS 서버를 통한 배포도 지원한다.

두께는 17.8mm, 가장 얇은 부분은 8.6mm이며 배터리 포함 무게는 3.1kg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Red Dot Design Award 2026) 본상을 수상했다. 운영체제(OS)는 LG전자의 TV·사이니지용 webOS를 탑재했다.

이번 출시는 LG전자 MS사업본부의 B2B 사업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LG전자는 webOS 플랫폼과 B2B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디바이스와 플랫폼, B2C와 B2B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MS사업본부는 webOS 적용 제품을 모니터·사이니지·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확대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민동선 LG전자 MS사업본부 ID사업 부장은 "조경량·조슬림 디자인에 초저전력 기술을 더한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가 B2B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중공업 캐나다 조선소 협력 확대

잠수함 기술력 부각... CPSP 수주 총력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전선을 넓히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입항을 계기로 K-잠수함의 기술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캐나다 주요 조선소와 함정 건조·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산업 참여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데이비조선소 오타와 사무소에서 양사 경영진이 화동해 조선 및 함정 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동에는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본부장과 제임스 데이비스 데이비조선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기술력과 K-잠수함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캐나다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또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캐나다 현지에서 K-잠수함 홍보전에도 힘을 보탤다. 주원호 함정·중형선사업대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식과 주캐나다대사 주관 리셉션 등에 참석했다.

캐나다 조선업계 인사들의 울산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캐나다 어빙조선소의 더크 레스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수주에 필요한 산업 협력 패키지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HD현대중공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HD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업체로부터 수조 원 규모의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현지 조선소에 상선·함정 건조 노하우를 이전하고, 잠수함 운용·보수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조 원대 절충교역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계 월평균 310만5000원 썼다... 교통·운송 ↑ 교육 ↓

데이터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올해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최근 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가계 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소득 증가율에 앞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분기와 비교해 5.3% 늘었는데,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3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2.4%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

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이다.

소비지출은 교통·운송에서 36만2000원(+12.1%) 늘면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구입(29.6%)이 특히 급증한 데다 운송기구 연료비(5.3%)도 늘었다.

보건 지출은 25만5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외래의료서비스(12.6%), 입원서비스(18.9%), 의약품(8.0%) 등이 고루 늘었다.

이에 반해 교육 지출은 23만7000원으로 2.9% 줄었다.

소득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42만2000원으로 소폭(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2만5000원(2.6%), 이전소득은 96만4000원(9.7%) 늘었다.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7.8%, 사적이전소득은 14.6%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0.3%에 그친 배경에 대해 "300인 이상 사업체들은 임금 많이 늘었으나, 그 아래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 확대에는 자동차·가구 등 내구재 구매 증가의 기여 비중이 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의 흑자 여력 감소 역시 자동차나 가구 같은 내구재 구입 증가 영향이 컸다"며 "교통·운송비 증가는 연료

비 영향도 있지만 자동차 구입 증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활황 영향이 소비 증가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비소비지출은 113만7000원으로 1.2% 늘었다. 이자비용이 6.6%, 사회보험이 2.8% 각각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000원으로 2.7% 늘었으나,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흑자율은 28.5%로 전년동분기 대비 1.7%p 하락했고,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7%p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117만원으로 2.7% 늘었고, 5분위 가구는 1237만8000원으로 4.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유혜은 기자 dhalehdale@